



## 할리우드 개척자의 즐거운 오류

할리우드를 정복하기 위한 심형래 감독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야심작인 <라스트 갓파더>는 '공룡 SF물 만들기' 외에 그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영구 캐릭터'를 내세우고 있다. 1951년 뉴욕의 거리를 배경으로 마피아의 대부 돈카리니(하비 카이텔)의 숨겨진 아들 영구(심형래)가 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겪는 좌충우돌식의 행동이 영화의 전면에 흐른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이런 코미디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인 <대부>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바보 영구와 결합시킨 새로운 슬랩스틱 코미디가 탄생한 것이다.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심형래 표 영화의 구성은 어설플 면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깔끔하다. 그 대신 관객을 객석에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한 방이 없는 것이 아쉽다. 코미디물은 한방 터뜨리는 웃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라스트 갓파더>는 큰 것보다는 잔 편치로 승부수를 띄워 나간다. 그나마 남의 웃을 입을 듯 보이는 대부와 영구와의 만남은 그 자체가 코미디인 까닭에 웬만한 허점들은 '웃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했던 영구의 장점들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의 관객들을 너무 의식한 탓일까? 아니면 찰리 채플린과 미스터 빈에 주눅이 든 것일까? 한국적 코미디의 대명사가 된 영구가 아버지로 나오는 하비 카이텔의 세계적인 연기에 압도당하는 바람에 그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번에도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어른들의 판단은 긍정과 부정으로 분명하게 엇갈렸다. 왜 그랬을까? 심형래 감독은 절충이 아닌 모험을 선택했어야 했다. 절충은 모험이 끝난 뒤 생각해보는 대안일 뿐이다. 정말 할리우드를 정복하고 싶다면 미국인들이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한국식 바보 코미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다. 어차피 한국에서의 흥행이 발판이 되어 미국상영을 모색한다면 한국에서 먼저 웃기고 미국으로 건너가도 괜찮다. 성룡이 그랬던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영구의 뉴욕입성기를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형래의 '영구'는 산업사회의 비인간성을 풍자하는 '찰리'나 소시민적인 자아를 드러내는 '미스터 빈'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캐릭터다. 그는 바보스럽지만 순박한 한국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다. 서구인들에게 영구는 어차피 새로운 존재인 만큼 문화적 이질감을 감수하는 대신에 동서양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1세기 형 바보 캐릭터의 진수를 영구 안에 심어줄 수 있어야 했다. 현대인들은 동서양의 문화를 떠나서 자신 보다 모자란 존재로부터 위안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심감독이기에 영구가 미국에 부는 한류열풍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아쉬움이 마음 한 구석에 서려있다.

## 진중권의 비판에 대한 변론

하비 카이텔도 이게 처음엔 코미디가 아닌 줄 알았다더라. 그런데 대본을 읽다보니 너무 재미있었다. 결정적으로 그가 출연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나를 트레일러로 불러서 직접 해준 이야기인데, 네살 먹은 아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영화가 있었으면 싶어서라고 했다. (<할리우드에 영구 없다? 아니 있다!>, 2011년 1월 4일자 '씨네21')





과의 인터뷰에서)

심형래 감독이 밝힌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며, 그것은 그의 최신작 <라스트 갓파더>를 놓고 벌어진 논쟁과 그의 영화관(映畫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의미 깊은 진술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할리우드의 관록있는 배우로 정평이 나있는 하비 카이텔은 이 영화를 '네 살 먹은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뜻을 통해 이 영화가 어린 아이들이 볼 만한 수준의 영화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연령의 의미로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이 볼 만큼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비록 마피아 대부의 후계자의 기상천외한 에피소드가 나열되고 있지만, 바보스런 영구의 착한 속 마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동네를 잘 살게 만든다든지, 엄청난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등의 선한 행위를 통해 이 영화가 '착한 영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하비 카이텔 자신이 <악질 경찰>이나 <저수지의 개들>처럼 강하고 개성 넘치는 연기를 펼쳤지만 현실의 선함과는 거리가 먼 작품을 해왔던 까닭에 자신의 이전 영화들과는 다른 '착한 영화'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적인 문화평론가 진중권이 자신의 트위터에 "유감스럽게도 난 한번 불량품을 판 가게에는 다시 들르지 않는 버릇이 있어서, 이번엔 봐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라는 비판적 글은 새롭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라스트 갓파더>는 불량품이기 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볼 만한 수준의 이해능력을 갖춘 정교하지 못한 작품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는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토이 스토리>가 보여주듯이 새롭고 세련된 기술과 연출은 어른들이 보아도 깜짝 놀랄만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를 평가하는 일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어떤 어린이들은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사육장 앞에서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에 열광하기 보다는 높은 철망 아래에 집을 짓고 사는 개미들의 움직임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같은 대상을 경험할 때 갖게 되는 어른의 기대와 아이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진중권은 "영화판에서 남들은 한번 실패하면 다들 찌그러집니다. 재능은 있으나 아예 한 번 실패할 기회도 못 잡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구요. 근데 님은 허접한 음식 내놓은 음식점에 다시 갑니까? 주인 용기 북돋아주러?"하며 할리우드를 정복하려는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영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라스트 갓파더>를 허접한 음식에 비유했다. 이 역시 음식과 음식을 둘러싼 문화적이며 기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발언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음식점을 찾는 이유는 단지 음식이 맛있기 때문도 있지만, 교통여건이나 분위기, 음식점 주인의 친절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스트 갓파더>는 개봉 한달을 넘기면서 25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 관객들이 단순한 애국심 마케팅이나 심형래의 열정적인 TV 홍보에 속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중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비판자의 교만일 수 있다. 영화는 사회적 산물이며 영화의 가치가 꼭 스크린 위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 심형래의 한(恨)은 풀릴 것인가?

1999년 여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은 심형래 감독이 제작한 영화 <용가리>를 보기 위한 꼬마 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심형래 감독이 제작한 영화의 단골 관객이 어린 아이들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전의 그의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시내 중심가의 극장은 물론 한국 공연 예술의 중심인 세종문화회관에 까지 입성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자신의 영화는 늘 '회관용'이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개그맨 출신다운 우스개소리 속에는 그동안 자신의 영화를 알아주지 못한 한국영화계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심형래가 나오는 영화 혹은 그가 만든 영화는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시각 때문에 서울 시내의 변변한 극장에 한 번 걸리지 못하고 어린이 회관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도민, 시민회관, 심지어는 예식장을 찾아 다녀야 하는 수모를 겪었던 그였으니 말이다. 그의 할리우드 진출은 과거의 수모와 한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핵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디 워>와 <라스트 갓파더>를 통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그도 우리도 깨닫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심형래 감독의 한(恨)은 그의 영화가 아닌 '영화 만들기'에서 오는 삶 자체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나 싶다. 그의 할리우드 도전기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 볼 만한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첫째는 도전하는 용기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세계적인 영화만들기를 꿈꾼다면 누구든 할리우드에 입성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벌여야 한다. 교회는 세속적인 사회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비록 예배당은 작아도 자신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온 세계를 품어야 한다(행1:8).

둘째는 비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일이다. <디 워>에서 특수효과에 비해서 줄거리가 형편없다는 말을 듣자 이번에는 <토이 스토리>와 <에반 올마יתי>등의 각본을 쓴 '조엘 코헨', '알렉 소코로브' 같은 할리우드의 일급 작가를 영입하여 시나리오를 보완했다. <라스트 갓파더>는 <디 워>보다 훨씬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 못가서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한사람에게서 나오는 창조력은 한계가 있다. 교회는 성도들과 협력하고 세상의 비판을 흘려트지 말아야 한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쓴 소리들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셋째 심형래 감독은 성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100편의 영화를 만든 임권택 감독은 한국이 자랑하는 영화의 거장이지만 그의 모든 영화들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영화를 많이 만들다 보니 영화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성이 담기기 시작한 것이다. 심형래는 여전히 영구로 각인되어 있지만 영화에서 그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자라나야 하는 생명체란 사실이다.

